

소비문화의 가속화와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

이장형(천안대 기독교윤리학)

1.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소비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사실 문화는 일종의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독교인들도 예외 없이 소비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소극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때로는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가 우리 생활 및 의식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기독교 공동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구촌화, 세계화가 급속히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소비문화’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독교윤리의 논의도 ‘어떻게 생산하는가’하는 관심에서 ‘어떻게 소비 하는가’ 하는 관심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2. 소비문화의 시대

1) 소비와 문화의 관계

문화를 소비와 관련시켜 논하게 될 때 그 연계점으로 가치의 문제가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문화의 구성요소에는 문화적 신념, 문화적 가치, 문화적 규범 등이 있는데, 특히 가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무엇이 바람직한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특별히 중요한 신념을 말하기 때문이다.

소비심리의 여러 요소들은 구체적으로는 마케팅 분야와 관련되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소비문화의 전반적인 현상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흔히 경험하는 문화충격이라는 것도 소비와 문화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소비문화의 역사적 발전

위그랜트 매크래켄에 의하면 소비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논자는 이 설명을 수용하면서 현대는 네 번째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16세기 후반의 영국에서의 소비 붐을 들 수 있겠다. 엘리자베스 1세기 시대의 영국 귀족들은 새로운 열광을 갖고, 새로운 규모로 돈을 지출하였다. 그들은 서양의 소비의 성질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측면이 있다.

둘째로, 18세기에는 소비의 폭발이 있었다. 재화 세계가 극적으로 확대되어 가구, 도기, 은제품, 거울, 포크와 나이프, 정원용품 등을 구입하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었다. 매켄드릭 등은 이 때를 현대 소비문화의 시작을 목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고 있다.

셋째로, 19세기는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되는 시대이다. 소비와 사회가 매우 긴밀한 관계

를 형성하게 된다. 소비는 대중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백화점의 등장도 큰 몫을 감당하게 된다.

넷째로, 지구촌화와 세계화는 소비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역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가 재화를 공유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만이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농산물 및 공산물, 나아가 서비스의 경우까지 대량소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3)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물질주의의 힘

두크로는 데카르트를 언급하면서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고 소유자’로 규정하였는데, 인간이 주체라는 생각이 자신의 신체성과 전체 세계를 폭력적 인식과 기술적 조작이라는 기계적인 객체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합리주의에 기초한 인간의 사고와 자유의 증대는 상품과 재화의 소비를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넓은 의미의 물질주의가 자리 잡는 기초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4) 쇼핑과 사치의 문화적 의미

토마스 하인은 쇼핑을 통해 개인은 파워를 드러낸다고 해석하고 있다. 물론 최소한의 물품을 소유하고 생활하던 고대사회와 기계문명과 주거문명의 발달과 함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를 동일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은 단순화와 비약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쇼핑에서 자신의 자기표현(소유물건이 나를 규정한다), 심리적 불안(유행과 불확실성), 관심(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관심), 소속감(취향에 맞는 공동체), 축하, 편의 등의 의미를 발견해 낸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며, 현대 소비사회의 분석에 있어서도 좋은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품의 소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적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집착하며 대량소비의 단계를 지나 질적 소비를 추구하는 단계가 되면 다양한 정보에 의한 계층 형성을 추구하는 소비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 사치품과 사치문화는 있어왔다. 부족국가 체제였던 사회의 분묘 등에서 발굴되는 장신구, 무기 등을 보면 ‘사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치가 대중화되는데 문제가 있다. 즉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도 증가되고 있으며 그 총량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으로 소비 가속화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필요에 의한 소비를 넘어 과시를 위한 소비가 되면서, 소위 기업체의 브랜드와 명품전략은 세계화되며 대중화되는 소비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기독교적 접근과 대응 방안

이미 물질주의와 소비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물질에 관한 율법주의나 상황 주의적 논의가 아닌 적실성을 갖는 대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논자는 새로운 대답을 찾지는 못했다. 기독교의 전통과 논의 가운데 이미 해답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 통합과 통전성의 회복

윌리엄 슈바이커는 현대사회의 힘이 지니는 신학적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전통적인 힘인 정치력보다도 앞서는 현실 가운데, 행위와 행위자의 통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돌아보게 한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던적 사회에서는 선에 대한 고백이 상실되고 있으며, 선의 실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힘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목적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던 도덕적 선이 논의의 초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슈바이커는 이러한 최근의 위협을 반실재론(antirealism)이라고 지칭하면서, 도덕이란 단지 인간의 발명이며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등장하고 있는 위험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이를 거침없이 실행 할 수 없기에, 전통과 새로움, 윤리의 다원성과 인간의 미래적 요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책임 윤리는 더욱 필요하다. 만일 인간들이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 가치를 함양하지 않는다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인간은 생명의 부여자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존중의 과제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슈바이커는 행위자, 힘, 가치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그의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은 힘이 가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술 문명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의 문제인 규범적 요소와 관련되고 있다.

2) 성경은 인간을 소유와 소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기독교는 물질을 부정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과 물질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묘사되고 고백되고 있다. 플레처(Joseph Fletcher)는 모든 재산 곧 부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적 자원과 그 생산물의 주인이요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재산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단초를 우리는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 소유의 사용에 대해서 외적인 것들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그는 자신의 이성과 의지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자연적인 지배권”을 가진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규모 있는 생활 및 경제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규모 있는 경제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자기 자신과 노부모님을 포함한 자기가족의 생계를 책임 있게 공급하며(살후3.6-15, 딤후5.8), 나아가 자녀교육과 불의의 사고를 예비한 저축(고후12.14, 딤후3.14)과 구제 및 헌금(엡4.28, 행20.33-35), 그리고 각종 세금(마22.21, 17.24-27, 롬13.1-7)등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근로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의 물건이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는 것이다. 자만심과 유행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언젠가는 모든 이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유와 책임을 느껴야 한다.

4) 소비를 향유할 것인가? 아니면 애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부에 대해서 확장시킬 수 있다. 물질과 부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며,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선하다. 그러나 나머지 피조물들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선하기 때문에 선하다. 그것 자체로서 선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향유하는 것은 그것만을 위하여 애착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물을 이용한다는 것은(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용하도록 받은 바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용(사용)의 대상을 향유하고, 향유의 대상을 이용하

는 경우가 많다.

5) 공동체성의 회복

물질에 대한 소비지향, 소유지향적 태도를 버리고, 물질을 향유할 수 있는 태도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넘어서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단순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순박한 논리나 수도원적 질서와 영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에는 소비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대안을 찾고 비판적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교회조차도 그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교회 내의 공동체성 함양 뿐 아니라 교회 간의 연대의식 또한 중요하다.

4. 결론

포스트모던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강력한 소비문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소비는 단지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에서부터 심연의 의식세계에까지 관계되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확산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을 자급자족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획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상상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화 과정을 통해 또 한번 비약적인 대량소비의 증가를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전보다 싼 가격에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비문화의 가속화 물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논자는 본문에서 통합과 통전성의 회복, 소유와 소비로부터의 자유, 규모 있는 경제생활 및 경제윤리 교육, 큐피디타스가 아닌 카리타스적 태도, 공동체성의 회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한국교회는 과연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복음과 성경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락과 자유의 가치가 저급한 물질문명과 소비문화로 채색되거나 대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